

# 북한개발소식

2022 SEP

09

통권 203호

이달의 주제

코로나 이후 탈북민 사역과 한국 교회

서평

서해 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북한뉴스

북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 선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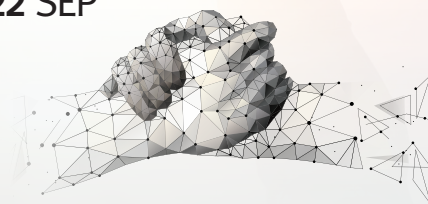


권두칼럼

# 코로나 이후 탈북민 사역과 한국 교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2 SEP



이달의 주제 :

### 코로나 이후 탈북민 사역과 한국 교회

- 권두칼럼 **01** 코로나 이후 탈북민 사역과 한국 교회
- 칼럼\_1 **07** 하광민\_코로나 시대 속에서 탈북민 사역과 남북통합목회의 방향
- 칼럼\_2 **16** 정형신\_코로나 이후 탈북민목회와 한국교회의 동역
- 칼럼\_3 **22** 김광석\_코로나19 이후 통일민 교회의 남북통합목회에 대한 고찰
- 탈북민 수기 **26** 김모란\_주님의 은혜 (1)
- 북한뉴스 **32** 북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 선언 외
- 서평 **37** 서해 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 북한 기도 제목 **38** 탈북민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탈북과 한국으로 이주로 국내 입국 탈북민의 수가 3만을 넘어섰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북한 선교의 일환으로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에 힘써 왔다. 탈북민들이 북한 출신으로서 가지는 독특한 경험과 문화는 한국 교회에게 북한선교와 통일을 대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탈북민 성도들을 통해 한국교회는 70여년이 넘는 분단 상황 속에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가진 남과 북이 통일 이후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지 미리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으니 탈북민은 한국교회에 찾아온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선교사로서 탈북민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은 선교적으로도 중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반적인 교회 사역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탈북민 사역도 큰 영향을 받았다. 신규 탈북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이고 탈북민

교회들 역시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출석 교인 감소와 교회 재정의 축소를 겪었고 중대형 교회의 통일선교부 및 탈북민 부서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렇지만 탈북민 사역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 글에서는 비록 재확산의 위험은 여전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풀 꺾여가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탈북민 교회 사역이 마주하는 상황들을 살펴보고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촉구하고자 한다.

### 탈북민 교회 사역의 필요성과 그 전문성

해외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동포 교회를 통해 많은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한

국 교회는 입국 후 자연스럽게 교회의 문을 두드린 탈북민들을 섬겨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화적으로나 삶의 배경 및 경험이 남한 출신 성도들의 그것과는 다른 탈북민들을 위한 전문적인 사역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대형 교회에는 전문 부서가 별도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탈북민들을 위한 교회들이 하나 둘 개척되고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양성되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탈북민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탈북민 사역의 특징과 의의, 그리고 그에 맞는 사역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통일 선교 목회’, ‘통일 목회’ 또는 ‘남북 통합 목회’라는 개념이 창안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광민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통일선교 목회’는 “오랫동안 분단되어 서로 달라진 남과 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되게 함이며,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가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이행하는 목회적 활동”이라고 정의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탈북민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목회를 일컫는다. ‘통일 목회’는 탈북민 사역을 주로 지칭하는 “통일선교목회”라는 개념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포괄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성경의 보편적 원리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는 목회적 원칙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그러나 통일 목회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포괄적이 되면서 탈북민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다보니 적시

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남북 통합 목회”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남북통합목회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주민들이 복음으로 한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이념, 문화, 정서 등의 차이를 극복하고 융합해가는 목회”를 뜻한다.

탈북민 목회를 중점으로 하거나 남북통합목회를 추구하는 교회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2년 기준 전국에 68개의 탈북민 교회를 통해 1만 명이 넘는 탈북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sup>2</sup> 여러 중대형 교회에서 탈북민 부서를 운영 중이다. 외형적으로는 이러한 교회들이 그저 소형교회, 개척교회, 또는 여러 교회 부서 중 하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통일 시대와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러한 교회와 사역자들은 한국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통일을 생각할 때 남북통합목회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마주하게 될 이슈이기 때문이다.<sup>3</sup>

## 코로나 이후 교회 양극화의 심화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된다면 목회 환경도 이전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목회 현장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

1 하광민. (2022). “남북통합목회의 현황과 미래 과제에 대한 연구”. 복음과 선교 55, (2021), 511-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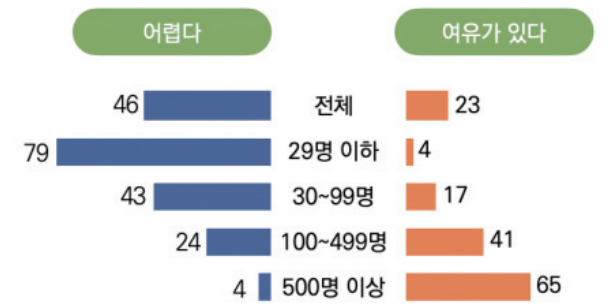
2 “북한 선교와 통일, 탈북민 교회 중심으로 시선 맞춰야”. 크리스천투데이, (2022.06.14),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8191>>

3 이 글에서는 용어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통합목회를 추구하는 교회 또는 탈북민 성도 위주의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통틀어 “탈북민 교회”로 지칭한다.

[그림] 작년 대비 올해 교회 예산 변화 (교회규모별, %)



[그림] 현재 교회 재정 상태 (교회규모별, %)



〈교회 예산과 재정상태에 대한 목회자 설문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교회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목회데이터연구소)\*〉

펴보면 팬데믹 상황의 완화와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사역 환경은 이전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탈북민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는 긍정적 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우려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목회환경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가 예배나 설교를 영상매체로 접하기 쉬운 대형교회를 약화시키고 대면모임에 강점이 있는 소형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회복세가 빠를 것이라 관측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히려 대형교회로 성도들이 몰리고 소형 교회는 침체되는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1년 6월 예정통합 목회자 891명을 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교인 수 변화 예상에서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대형 교회일수록 더 높았다. 하지만 실제 감소폭은 오히려 소형 교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sup>5</sup> 같은 기관의 22년 6월 예정 통합 목회자 9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사이의 재정적 격차가 심해지고 전도나 새신자 등록 수준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번아웃 이유에서도 ‘99명 이하’의 교회 목회자는 50% 이상이 ‘재정적으로 회복이 어려워/교인들이 계속 줄어서’를 꼽았지만, 그 외 ‘100~499명’과 ‘500명 이상’ 교회의 경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를 꼽았다.<sup>6</sup>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의 전반적인 페러다임을 바꿔놓았고, 최근의 재확산에서 보이듯 코로나19는 완전한 퇴치나 박멸이 아닌 우리가 계속 함께

5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 전체의 20%”. 한국기독신문, (2021.09.07), <<https://kcnp.com/news/view.php?no=6350>>

6 “현장예배 회복에도 갈수록 커지는 '교회 양극화'”, 데일리굿뉴스, (2022.06.14),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426>>



가야할 존재가 되어가면서 이로 인한 “뉴노멀”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중대형 교회들은 잘 갖추어진 교회 체제 위에 온라인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강점이 더 두드러지는 가운데 소형 교회는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가 개척 초기이거나 소형 교회인 탈북민 교회들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교회의 양극화 현상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후 탈북민 교회들은 출석 교인 규모나 교회 재정이 거의 반토막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고 이를 목회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극복해왔고, 최근 이러한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7</sup> 뉴코리아교회 정형신 목사가 21년 12월을 기준으로 탈북민 교회 5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탈북민 교회 전체 평균 교인수는 약 36명 정도이고 만 5년이상 된 교회들의 경우는 49명으로 나타났다. 100명 이상의 교세를 가진 교회는 4곳이었다. 재정적으로는 평균 월 244만원 가량의 재정수입을 나타내고 있는데 교회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보니 목회자 사례가 없는 교회가 24곳이나 되었다.<sup>8</sup> 단순 수치로만 보아도 사망감만으로 사역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외부 환경도 여의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입국 탈북자 숫자가 22년 6월 (잠정) 기준 19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고<sup>9</sup>, 한국 교회 내에서도 남북관계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교회 활동 위축으로 북한선교나 통일선교에 관심이 많이 저하되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도 여의치 못하다. 중대형 교회의 탈북민 부서 공동체의 경우도 담당 교역자 변경 및 대면 예배 중단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진 교회와 목회자

그렇지만 탈북민 교회의 열악한 상황과 비우호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목회의 현장에서는 더 많은 전문 사역자와 교회 사역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탈북민들에 대한 목회적 필요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증가했다. 코로나19는 질병 자체의 위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유발하지만 봉쇄와 격리에 따른 심리적인 압박감도 동반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봉쇄로 인한 우울 증세를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탈북자들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와 적응 과정에서의 외로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에 더 취약하다. 지성호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1년 7월 사이에 국내에서 사망한 탈북민 154명 중 ‘사인(死因) 미상’으로 처리된 경우가 90명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 미상은 병이나 고령, 사고, 자살 등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죽음을 말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고독사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사인 미상이 1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우울증 및 두려움, 외부 교류의 제약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sup>11</sup>

사실 전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은 더 많은 영적인 필요를 발생시킨다. 재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마음, 회개의 심령에 영향을 준다. 탈북민들이 여러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더욱 필요하고 또 받아들이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영적인 돌봄은 온라인상에서 100% 충족되기 어렵다. 특별히 장년층의 경우 인터넷이나 온라인 환경이 낯설어 이를 통한 소통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죽음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한 구제와 함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위로하는데 힘써왔다. 류길선 교수가 개혁신교회를 중심으로 정리한 과거 재난이나 전염병 창궐과 같은 위기 속에서 교회가 취했



던 모습을 살펴보면,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재난 앞에서 교회는 구제나 의료봉사 등의 구호 활동 뿐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여 말씀 사역과 심방 사역에 필사적으로 나섰다.<sup>12</sup> 예를 들어 16세기 제네바의 교회는 흑사병이라는 극단적인 전염병과 전쟁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격리된 교구의 성도들을 돌보고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들을 심방하며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들에 대한 구제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종교개혁가 베자 (Theodore Beza, 1516~1605)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난한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사역의 필요와 과거 교회의 역사적 본보기를 생각해보면 규모는 적지만 일선에서 탈북민과 접촉하는 탈북민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깊은 관계성을 바탕으로 한 말씀 양육과 돌봄을 실제로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탈북민 교회와 목

7 정형신. (2022). “남북통합목회의 기초자료-탈북민교회의 현황”.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22년 전반기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2.

8 정형신, 위의 글, 13-16.

9 통일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조회일: 8월 17일)

10 하광민. (2022). “남북통합목회의 현실과 미래 과제”. 총신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22년 전반기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41-42.

11 “정부 무관심 속에, 탈북민 고독사 4배 급증”. 조선일보, (2021.11.2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27/SER533YWCJDEBHPPEH-WIRN6P4/](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11/27/SER533YWCJDEBHPPEH-WIRN6P4/)>

12 류길선. (2021). “전쟁과 전염병, 개혁신교회가 대처한 역사적 사례: 원리와 적용”, 개혁논총 58, 197-230.

# 코로나 시대 속에서 탈북민 사역과 남북통합목회의 방향

하 광 민 교수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 1. 들어가며

코로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교회도 코로나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받은 곳 중의 하나이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 감소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또한 북한선교도 큰 타격을 입었다. 90년대 중반부터 한국교회의 북한선교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6월 현재, 11명의 탈북자가 국내로 들어왔다. 탈북민을 매개로 하던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구도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탈북민이 급감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북한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또 한 가야 하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하면 ‘남북통합목회’의 형태로 국내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품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다.

## 2.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국내 탈북민 사역의 형태 변화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거 등장으로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추상적이며 이념 논쟁적인 선교에서 벗어나 실제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사람중심의 선교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역들은 탈북민정착지원, 탈북민대안학교, 탈북민 공동체, 탈북민을 중심으로 한 북한교회세우기 정책 등이 있는데 이는 기존 북한선교계에서 선교 현장(field)이 없었던 북한선교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급감하게 되었다. 이는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국내 북한선교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교회의 탈북민 정착지원사역은 이미 정부와 유관기관으로 넘어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역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가 대부분 운영하는 탈북

화자들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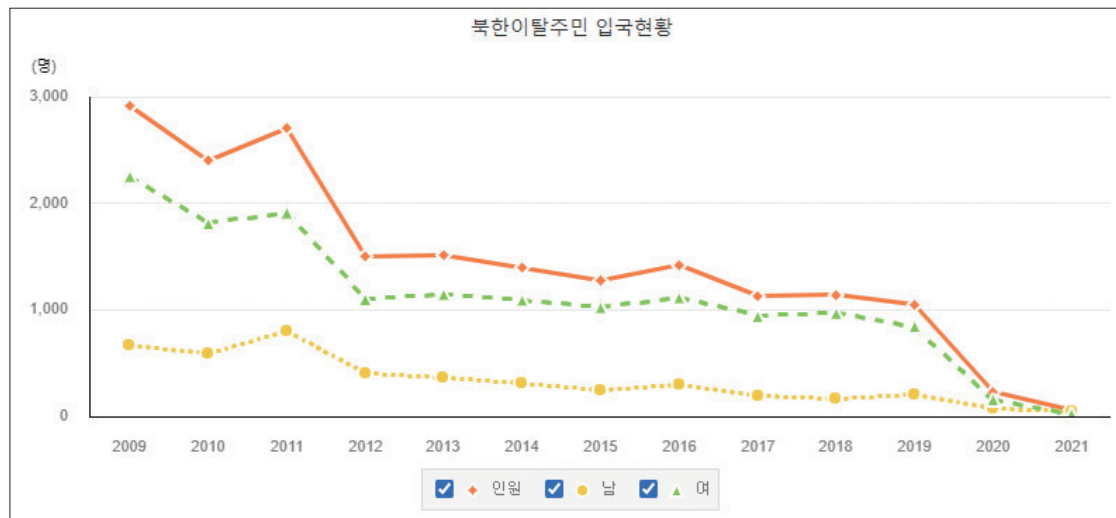
## 한국교회의 하나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자가 사역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영혼을 돌보는 일은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및 교제가 꼭 필요하다. 특별히 탈북민 사역은 대상자에 맞는 목회를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실제 현장에서 사역해온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존중받고 장기적으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교계가 보여주는 탈북민 사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 수준에는 아쉬움이 있다. 여러 교단이나 학회, 세미나에서 탈북민 사역의 중요성이 논의되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목회 현장은 목회자 개인의 화생과 헌신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 교회에게 탈북민은 북한 선교나 통일을 이야기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존재이다. 북한과 통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한국 교회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지만 정작 사역 현장에서는 소수의 사명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는 모습은 기형적이고 문제가 있다. 민족 교회 전체의 비전과 소명으로서 북한과 통일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면 실제 사역에서도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함이 당연하다.

각 교회들도 자신의 교회에 탈북민 출석 성도의 유무를 떠나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해당 사역에 동

참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탈북민 출석 성도들이 있고 관련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역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인재를 세우는 사역 방침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서 운영에 따라 담당 사역자를 순환시키기 보다는 인격적 교제나 실제적인 양육을 위해서라도 전문 담당 교역자를 세우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또 자신의 교회에 탈북민 성도가 없더라도 반드시 우리 교회가 직접 사역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미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직접 만나고 양육하고 있는 탈북민 교회 및 목회자와 협력하여 함께 사역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이제 종식을 기다리기 보다는 인정하고 감수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최근의 재확산에서 보이듯이 언제든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종이 퍼질 수 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목회 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상황변화나 복구가 아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을 추구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복음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남북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돋움 하는 일에 단순히 구호만이 아닌 실제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코로나 이후 입국자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e-나라지표)〉

민대안학교사역은 입학생 감소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가 몇 년간 지속되고, 이에 따라 탈북민의 국내 입국 수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탈북민대안학교 사역은 종결되거나 다른 형태의 교육사역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미 탈북민대안학교들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기존의 북한출신 학생들만이 아니라 중국출신 북한배경청소년들을 모집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문화탈북청소년학교로 전환하여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거나, 한국에 들어온 1세대 탈북민 가정에서 태어난 2세대 탈북초등학생 내지는 청소년들을 모집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탈북민의 감소는 탈북민을 매개로 하던 국내 북한선교구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 큰 변동 없이 지속되는 사역은 탈북민 신앙공동체 사역이다.

### 3.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신앙공동체 사역

국내 탈북민들이 정착한 이래로 탈북민들을 매개로 하는 신앙공동체 사역은 세 형태로 발전해 왔다. 1) 대형교회 내 탈북민 부서 공동체, 2) 탈북민중심의 교회, 3) 남북통합목회 공동체가 그것이다.

#### 1) 교회 내 탈북민 부서 공동체

교회 내 탈북민 부서의 출현은 90년대 중후반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등장함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교회에서 탈북민을 받아들여 별도의 부서를 만든 교회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교회들이었다. 현재 탈북민 부서 공동체는 전국에 20여개 정도 된다. 〈표1〉은 통일선교부 내지는 북한선교부가 조직된 교회를 대략적으로 나타낸다.

〈표1〉 중에서 굵은 글씨체가 탈북민 부서공동체

〈표 1, 북한-통일선교부 설치 교회〉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남서울교회, 온누리교회, 사랑의교회, 목동지구촌교회, 연세중앙교회, 여의도침례교회, 은평감리교회, 소망교회, 서대문교회, 서울영동교회, 서울은혜교회, 중앙성결교회, 한국중앙교회, 명성교회, 영안교회, <b>대한교회</b> , 주님의교회, 방주교회, 동송교회, 염광교회, 광염교회, 서울교회, 그레이스선교회, 사랑교회, 남대문교회, 은평성결교회, 성덕중앙교회, 남산감리교회, 늘푸른교회, 높은뜻 광성교회, 강남교회, 성민교회, 성락성결교회(성), 예능교회(통), 평광교회(통), <b>시냇가심은교회</b>
경기	거룩한빛광성교회, <b>향상교회</b> , <b>안산동산교회</b> , 분당지구촌교회, 분당우리교회, <b>할렐루야교회</b> , 분당갈보리교회, 과천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b>수원창훈대교회</b> , 만나교회, 선한목자교회, 분당창조교회, 서울반석교회, 새가나안교회(산본), 포도나무교회, <b>남양주온누리</b>
인천	<b>계산교회</b> , <b>주안장로교회</b> , 월드와이드교회(부천), <b>부천온누리</b>
부산	<b>수영로교회</b> , 세계로교회, 사직동교회, 온천교회, 시온성교회, 수영교회, 이삭교회, 제8영도교회, 호산나교회, 큰터교회, 땅끝교회
광주	양림교회, 뽕엘교회, 봉선중앙교회, 새벽이슬교회, 샘터교회, 하나교회 NK센터
목포	<b>목포사랑의교회</b> , 온세대교회, 창조교회,
대전	산성교회, 한밭제일교회, 한민교회, <b>대전대흥침례교회</b> , 늘사랑교회,
대구	새벽별교회, 봉덕교회, 동신교회
전주	양정교회, 동은교회, 팔복교회
춘천	주향교회
충주	<b>충주충일교회</b>
울산	대영교회
제주	아름다운교회, 성안교회

를 운영하는 교회인데 대략적으로 20여 개로 추정한다. 이중 신생 공동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2000년대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대부분 10여 년을 지속하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탈북민부서 공동체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탈북민만을 위한 영적, 물질, 심리적 집중 케어가 가능하다. 공동체의 목표가 명확하다. 한국에 온 탈북민들을 잘 섬겨서 이들이 향후 북한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둘째**,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을 돕는데 유리하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탈북민들이 교회 내 부서공동

체를 통해 교회와 신앙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알아갈 수 있다. 한국교회의 남한 중심의 공동체 속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자신들만의 문화와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주도할 수도 있기에 편안한 공동체로 여겨진다.

**셋째**, 본 교회 역시 집중하여 탈북민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다. 남과 북이 한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따로 탈북민공동체를 만들어 집중하여 케어할 때 교역자 선정, 재정 배분 등의 문제를 명확하게 운용할 수 있다.



**넷째,** 개 교회는 탈북민부서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그 교회 내의 북한-통일선교를 집중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 특히 탈북민부서 공동체는 그 동안의 북한-통일선교의 추상성을 실제화 시켜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대북인도적지원 문제는 진실성과 효율성 논란이 있으며, 북한지하교회 돕기는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해 왔다. 이런 점에서 탈북민부서 공동체사역은 가장 실제적이고 실체적 사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초기 한국교회가 탈북민부서 공동체 사역에 뛰어든 것이다.

위의 탈북민부서 공동체 사역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민부서 공동체 사역의 단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단점들의 대부분은 그동안 장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으로 단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첫째,** 탈북민부서 공동체의 명확한 비전이 탈북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탈북민들은 이 땅에 북한선교의 주역으로 서기 위해서 온 것일 수 있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자유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온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탈북민부서 공동체가 갖는 명확한 '탈북민의 북한선교의 일꾼론'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둘째,** 1990-20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은 교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도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부터는 먼저 들어온 탈북민들이 후에 들어오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앞장서서 돕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탈북민 초기 정착을 돕는 기관역할을 하는 탈북민부서 공동체의 역할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셋째,** 탈북성도들 역시 스스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탈북민부서 공동체는 그러한 성장을 담아낼 구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탈북민 성도가 탈북민부서 내에서만이 아니라 본 교회 내에서도 성도로 인정받고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탈북민부서 내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할 경우가 있다.

**넷째,** 탈북민부서 공동체 사역자가 그 부서를 전담하여 사역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역자의 잦은 교체는 탈북민부서 공동체원에게 혼란을 야기한다. 탈북민 공동체는 교회 내의 교회같은 끈끈한 공동체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담당 사역자에게 정서적, 영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와중에 사역자가 바뀌게 되면 탈북 성도들이 이탈하거나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민부서 공동체 사역자 스스로도 미래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탈북민부서 공동체 내의 사역자 리스크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2) 탈북민중심의 교회

2000년대부터 탈북민 신학생, 목회자 중심으로 탈북민중심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탈북민중심의 교회는 굳이 탈북민 목회자만 하는 교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한 목회자들이 주도하는 탈북민중심 교회도 있다. 탈북민중심의 교회라 할 때 교회의 주요 방향이 탈북민의 신앙성장과 그들

의 영적, 물질적 케어, 그리고 그들을 통한 북한선교에 맞춰져 있는 경우를 일컫는다. 현재 30여 교회가 있다.

탈북민중심의 교회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목회자의 대부분이 탈북민 목회자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둘째,** 탈북민 밀집 거주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주로 수도권 중에서도 강서와 강북, 인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셋째,** 남한성도들의 역할은 북한성도가 세워지기까지의 조력자 역할을 요구받는다. 남한성도들이 탈북민 교회를 찾는 이유는 북한선교에 대한 헌신의 일환으로 탈북민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북한선교헌신자들인 남한성도들이 탈북민교회에 잘 정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남한성도가 가지는 사명감과 헌신도가 너무 커서 그 탈북민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신된 남한성도들은 본인들이 자라고 배운 것들을 탈북민교회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요구하지만 정작 탈북민목회자와 탈북민성도들은 공허한 사명보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남한성도들이 스며들어 그들과 하나되기를 원한다. 이런 과정은 대략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남한성도들이 탈북민공동체를 떠나간다. 이럴 경우에 남은 탈북민목회자와 탈북민성도들은 2차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 후에는 새로운 남한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

다. 탈북민중심의 교회에서 남한성도의 역할은 준(準)선교사의 역할이다. 현지인을 양육하고 세워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 주도적이지 않고 언젠가는 후견인으로 서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그러면 탈북민중심의 교회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을까? 앞서 설명한대로, 탈북민중심의 교회의 핵심은 탈북민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이 최소 5년 이상은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탈북민중심의 교회의 탈북민목회자가 남한과 한국교회에 적응 하는 시간이 최소 5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목회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탈북민중심의 교회 역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탈북민중심의 교회는 적응중이고, 자체적으로 성장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3) 남북통합목회 공동체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라고 하면 탈북민부서 공동체와는 달리 독립적 교회를 의미하며, 탈북민중심 공동체와는 달리 남과 북의 성도들이 차별없이(신분), 제한없이(자격) 모든 면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동등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눈높이를 서로가 맞추려는 공동체이다.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공동체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런 목회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남한목회자들이다. 아무래

도 한국교회를 경험한 남한목회자들이 탈북성도들을 품으면서 남과 북의 복음통일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받기가 쉬웠으리라 여겨진다.

또 다른 부류는 탈북민중심 교회를 해 오던 목회자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변모하는 것이다. 이 현상도 자연스러운데, 탈북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남한화 되어져 가며, 또한 남북 커플들이 생겨나고 교회에 정착하며, 더 나아가 탈북민중심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남한 성도들이 출석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민중심의 교회마저도 남북통합목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탈북민중심의 교회 목회자가 남북통합목회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남북통합목회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 결국 목회자가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탈북민중심 교회가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로 변모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탈북민중심 교회가 대체적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연령대가 높은 반면에 남북통합목회 공동체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남북의 젊은 층들이 서로에 대한 문화 수용력이 높은 것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들이 남한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남북 문화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지님을 알 수 있다.

남북통합목회 공동체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교회와 갖는 관계의 질이다. 탈북민중심 교회는 후원자와 후원을 받는 관계로 주로 구성된다.

그러나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한국교회와 될 수 있는 한 동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들도 재정적 후원을 비롯해서 여러 지원들을 받고 있지만, 남북통합목회 공동체 내에는 남한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에 서로 주고 받는 동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강한 복음 공동체를 지향한다. 기본에 충실하는 경향이 있다. 예배에 대한 강조,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 남북이 함께 하는 소그룹활동, 다음세대에 대한 강조, 전도와 선교에의 헌신 등이 대부분 비슷하다. 예배 안에서 남과 북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되는 경험이 쌓이며, 성도 한명 한명을 훈련시키는 공동체의 특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통합목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 또는 공동체성이 다른 유형의 공동체들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 또는 제도를 구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공동체 내에 들어오는 탈북성도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기구, 예를 들어 사회적 NGO를 만들거나 선교회를 조직하여 공동체 내의 탈북성도들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성도들을 향한 구제나 실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해나간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제도를 통해서 돕지 공동체 자체에서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

이 단원의 결론으로 세 가지 형태의 탈북민을 매개로 하는 공동체는 각자의 공동체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탈북민부서 공동체는 쇠하여 질

것으로 예상되며, 탈북민중심교회와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중심교회 중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자연스럽게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로 변모해 갈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분단 직후 한국으로 내려왔던 월남민성도들이 일군 월남민교회들의 역사가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역시 북에서 내려와서 월남민중심의 교회를 세웠지만 결국에는 한국교회화되어서 지금은 한국교회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탈북민중심의 교회 역시 언젠가는 남과 북의 통합목회라는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 4. 남북통합목회의 미래 과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남북통합목회는 한반도 상황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의 시대에 남과 북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날 때에 이미 남북통합목회를 통해 경험한 이 복음 안에서의 통합의 정신이 한반도 전역에 뿌리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의 공동체들의 미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 1) 탈북민부서 공동체의 미래 과제

전술한대로 탈북민부서 공동체는 한국교회 내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 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탈북민 부서의 운영주체와 성격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탈북민 부서의 담당 사역자들이 남한 사역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도

북한-통일선교사역에 비전이 있다기 보다는 주어진 사역이기에 담당하는 격이었다. 이제는 탈북민부서 담당사역자를 남한사역자에서 북한출신 사역자에게로 주도권을 넘겨야 한다. 남한출신 사역자가 탈북민부서를 담당하는 이유는 본 교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탈북민부서의 존재 목적은 본 교회만의 이유라기보다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는 것도 있다. 이 땅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탈북민 신학생과 목회자가 200명을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탈북민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기존 한국교회에서 인턴과정이나 사역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 탈북민부서가 있는 교회가 전국에 20 여개 교회인 만큼 사역의 기회가 많지 않지만 미래 북한사역자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탈북민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 탈북민부서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탈북민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향후 한국교회 내에서 탈북민부서 공동체 역시 더 이상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탈북성도들 중심으로, 또는 한국에는 이미 들어왔으나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탈북민 새성도들 중심으로 부서가 운영될 것이다. 이럴 경우 과연 탈북민 부서가 계속 존속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그 부서 자체가 게토화(ghetto)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탈북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탈북민은 분단 이후에 발생했던 월남민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월남민들도 50년대부터 70년대, 즉 30년을 지나면서 대부분 남한에 정착하여 스스로를 남한사람으로 자처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도 남한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남한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굳이 탈북민 부서가 존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2) 탈북민중심 교회의 미래과제

탈북민중심 교회 역시 과도기적 단계 가운데 나오는 교회이다. 탈북민중심의 교회는 남한 내에서 탈북민성을 강화하여 통일이 될 때까지 탈북민들 스스로 북한복음화의 주역이 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과도기적 상태에서 출현하는 교회 형태라 하겠다. 탈북민중심의 교회가 이 목표를 굳게 붙든다면 이 유형의 교회들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탈북민중심성으로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영적으로나 재정적인 것을 포함해서이다. 탈북민중심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 한국교회의 후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탈북민중심의 교회들과 한국교회와의 연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교회의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중요한 유산이 탈북민중심교회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개교회가 할 수도 있겠지만 각 교회가 속한 노회나 상위기관들이 나서서 연결해주면 효과적일 것이다.

## 3) 남북통합목회 공동체의 미래과제

남북통합목회 공동체 역시 과도기적 단계에서 출현하는 교회이다. 이는 남북분단 상태에서 통일 이후, 그리고 더 나아가 남과 북의 주민의 마음의 통합이 될 때까지를 상정한 목회이다. 탈북민중심 공동체의 존재목적 기간보다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더 성경적이며 문화수용적이다.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사회의 통합 이슈는 한국사회의 커다란 숙제이다. 따라서 남북통합목회는 현재 한국사회에도 적합하고 필요한 목회이며, 향후 남북통일 이후에도 남북의 이질적 문화와 체제 전환기에 반드시 필요한 목회 형태이다. 따라서 남북통합목회의 가치와 실제적 내용이 이 시대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확산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남북통합목회가 한국에서 지속가능하려면 탈북민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교회가 속한 지역 내에서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지역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남북통합목회 공동체 내에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는 것은 남북통합목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또한 이는 향후 통일 후 북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이 남북통합목회 공동체에 얼마나 오느냐가 미래 확산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둘째**, 남북통합목회를 이해하고 이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가 계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우선 탈북민출신 사역자가 있다. 그들은 탈북민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위에서도 논술했지만 탈북민 교회들이 남북통합목회로 자연스럽게 변환될 수 있기에 탈북민 목회자들에 대한 남북통합목회의 가치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역자 부류는 남한 출신 사역자들이다. 현실적으로 남한사역자들이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거의 맥이 끊긴 상황이다. 그러나 남한목회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향후 북한에 세워질 2만 여 개의 신규교회 수요를 감당할 준비된 사역자들을 기대할 수 없다.

남한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려면 북한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는 헌신자들 가운데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우선 탈북민사역에 동참해서 탈북민들을 매개로 북한주민을 이해하고 북한선교의 비전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사역자들이 탈북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국내의 다양한 탈북민 교회에 동참하거나 탈북민 사역(탈북민 대안학교, 하나센터, 탈북민 취창업 사역 등)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의 탈북민교회와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들이 문을 열어 이들에게 동역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남북통합목회는 향후 북한교회세우기를 위한 큰 전략과 함께 해야 한다. 탈북민중심의 교회 역시 북한교회세우기를 준비하겠지만, 통일시대에 남북이 함께 하는 통합목회 형태의 교회를 북한 지역에 세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교단마다 북한교회를 세울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교단별로 북한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큰 그림과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교회는 북한선교라는 거대 담론 하에서 이제는 각 교단별로 북한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단별 북한교회를 세울 목회자 선발과 양성 기준과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책적 준비와 함께 실제적 사역자를 준비해야 하는데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는 이런 큰 일환의 차원에

서 북한교회를 세울 사역자를 준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로**, 탈북민중심 교회가 한국교회와 연결되듯이 남북통합목회 공동체들도 교단별로 연결하여 교단적 차원에서 통일선교의 모판 교회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는 목회자 개인의 사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교단 차원에서 연계하여 인적, 물적 지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야 한다.

## 5. 나가면서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탈북민 사역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남북통합목회를 소개하고 그것의 현실과 미래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다. 남북통합목회라는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월남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남북통합목회,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탈북민의 등장으로 탈북민 부서 출현, 탈북민중심교회 등장, 그리고 남북통합목회까지 숨가쁘게 이어져오고 있다.

앞으로 통일 이후에는 북한 땅에 남북통합목회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북한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 가운데 남한 성도들이 함께 하는 목회가 되길 바란다. 이 일에 남한에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탈북민 신학생들과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주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어둠 속에서 새벽이 동트듯이, 한반도에 통일이 오고 있는 이 시기의 긴박함을 깨닫고 탈북민 사역자와 남북통합목회를 감당할 남한 사역자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

# 코로나 이후 탈북민목회와 한국교회의 동역

정 형 신 목사 (뉴코리아 교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한국교회는 예고 없이 찾아온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국내 거주하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 중 40%에 달하는 탈북민 복음화<sup>1</sup>를 이루어 냈고, 200명 가까운 탈북신학생·탈북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전국적으로 80개가 넘는 탈북민교회가 세워지고 사역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다.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수고의 열매인 것이다.

## 1. 탈북민교회 개요

일반적으로 탈북민교회를 정의할 때, 담임목회자가 북한출신이거나, 남한출신 목회자가 국내 탈북

민 사역을 주요 목표로 하여 개척된 교회 혹은, 성도 구성원 대부분이 탈북민인 교회를 통칭한다.

2004년 탈북민교회가 처음으로 개척된 이후 2022년 5월 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대략 82개의 탈북민교회가 설립되었다. 이중 14개 교회가 사라지고, 68개의 탈북민교회가 경기도 연천에서 제주도까지 남한 땅 전역에 자리 잡고 있다.

탈북민교회 개척은 초기 남한출신 목회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오다가 2015년 역전되었다. 전체 탈북민교회 61%가 북한출신 목회자들에 의해 개척되었고,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출신 신학생들이 신학공부를 마치고 혹은 그 과정에서 탈북민교회 사역의 일선 현장에 대거 등장하면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금도 매년 10명 이상의 탈북신학생들이 부르심을 준비하고 있다.

탈북민교회 내부적으로도 탈북민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아 감에 따라 남북한 성도들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는 많은 탈북민교회들이 탈북민이라는 특정 대상을 주요 사역목표로 삼았던 초기 사역에서 벗어나 남북통합목회의 큰 틀에서 남북한출신 성도들의 하나 됨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교회사역이 변화하고 있다. 탈북민교회 역사가 아직 20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수많은 진통과 은혜의 흔적을 남기며 묵묵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 2. 코로나 이후 탈북민교회 목회 현장

비대면예배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 3년 간 탈북민교회 숫자는 20%이상 증가하였다. 교회 내부 상황 역시 안정세를 찾아가는 추세이다. 전체 79%의 교회가 예년에 비해 출석성도가 늘어났다. 2021년 12월 말 기준, 탈북민교회의 교인 숫자는 평균 36명으로 예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하였다. 교인 수 100명 이상인 교회가 2개에서 4개로 배가하였다. 재정 수입은 전체 90%에 달하는 교회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하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평가하자면, 첫째, 탈북민교회에서 교인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작년 한해는 예년에 비해 교회의 부담과 담임목회자의 수고가 더욱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상황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3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출석교인 숫자

와 교회재정이 거의 반 토막 났던 그 자리에서의 소폭 상승이다. 따라서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표현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담임목회자 사례는 명목상의 금액인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명목상의 사례이다. 탈북민교회 담임목회자 가정은 대부분 자비량으로 몸 된 교회를 섬기며 그 이상의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

전체 68개의 탈북민교회 중 교회창립 만 5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교회의 상황을 분석한 자료<sup>2</sup>에 따르면 다음의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탈북민교회 평균 교인 수는 36명인 반면, 만 5년 이상 된 교회들의 평균 교인 수는 이보다 36%가량 많은 49명이다. 둘째, 전체 탈북민교회 월 평균 수입(중위값)이 197만원인 반면, 만 5년 이상 된 교회들의 평균 수입은 37%가량 많은 270만원이다. 담임목회자 사례도 비슷한 비율의 변화를 보인다. 셋째, 비록 더디지만 꾸준히 향존직(장로) 교인이 세워지고 조직 교회의 모양을 갖춰나가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반드시 성숙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장세는 탈북민교회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 3. 선교현장으로서 탈북민교회

탈북민교회는 북한선교의 현장을 제공하는 곳

1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서 최근 4년 간 발간된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국내 탈북민 기독교(개신교) 비율은 2020년 응답자 14,198명 중 41.4%, 2019년 응답자 13,479명 중 41.1%, 2018년 응답자 12,589명 중 41.4%, 2017년 응답자 11,765명 중 41.7%로 일관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 정형신, “2022탈북민교회 기본현황과 담임목회자 출신지역에 따른 목회상황 비교”



이다. 탈북민교회의 존재 의의는 북한에 세워질 교회에 있다.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일시적으로 남한 땅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따라서 탈북민교회는 선교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북한선교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 북한선교라는 것이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북한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교회는 ‘탈북민 목회자들’을 ‘남한 목회자화’ 하는 것에 힘써왔다. ‘탈북민 성도들’을 ‘남한 성도화’하는데 열심을 냈다. 앉아서 배워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앉혀 놓고 가르쳐온 것이다.

북한과 남한은 토양이 전혀 다른 곳이다. 전혀 다른 토양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창조적인 목회가 진행되는 곳이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북한사람들의 기질이 이해되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북한출신 목회자들의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이런 역동적인 선교훈련의 장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 4. 탈북민교회와 동역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북한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선교의 핵심은 북한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수만 명의 북한사람들을 남한 땅에 보내주셨고, 탈북민교회는 이들을 보듬고 만나는 가장 좋은 장소임에 틀림없다.

##### 1) 탈북민 목회자 가정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자.

아직까지 탈북민교회는 탈북민성도가 자라서 교회의 형편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니라 담임목회자 가정이 교회운영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탈북민성도가 늘어날수록 재정적자가 커지고 목회자의 헌신이 배가되는 구조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가정은 항상 2순위로 밀려난다. 사모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녀들은 방치된다. 작년 말 기준,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담임목회자 사례를 100만원 이하로 책정하고 있고, 이중에 절반은 사례가 전혀 없다.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탈북민교회 목회자가 일 년 중에 최소 한 달은 제대로 된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불씨선교회(정형신 목사) 혹은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탈북민교회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일이 북한선

교와 통일준비를 위한 선한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 2) 탈북민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하자.

탈북민교회의 주요 결실 중에 하나는 남북한성도들의 건강한 연합이다. 기존 남한교회 안에 탈북민성도가 들어가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보다 탈북민교회 안에 남한성도가 들어와서 하나 됨을 이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탈북민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주인으로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한성도들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남한교회는 독립된 탈북민교회 보다는 기존 교회 안에서 탈북민성도들을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파송을 계획할 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탈북민성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인들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라. 수년 내에 분립개척 할 것을 목표로 하고, 탈북신학생들을 부교역자로 초청하기 바란다. 기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라.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탈북민교회 개척운동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다. 가장 먼저, 교회가 생기는 일이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본질에 충실한 운동이다. 둘째, 모든 성도들을 기도와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셋째, 탈북민 성도들이 실질적인 동역자로 세워진다. 실제로 탈북민교회 안에서 탈북민 출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비율은 남한교회 내 탈북민 공동체의 경우보다 높다. 넷째, 남북한성도들

의 하나 됨을 이뤄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섯째, 북한선교의 현장이 생기는 일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 3) 탈북민교회와 파트너십을 만들라.

교회가 북한선교를 계획했다면 반드시 탈북민교회를 만나기 바란다. “우리교회가 북한선교를 한다”가 아니라, “우리교회가 탈북민교회와 함께 통일을 준비한다”인 것이다.

**1단계:**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는 탈북민교회 목회자들을 찾으라. 이들은 대부분 같은 탈북민이거나 탈북민들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전국에는 현장에서 탈북민들을 만나며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68개의 탈북민교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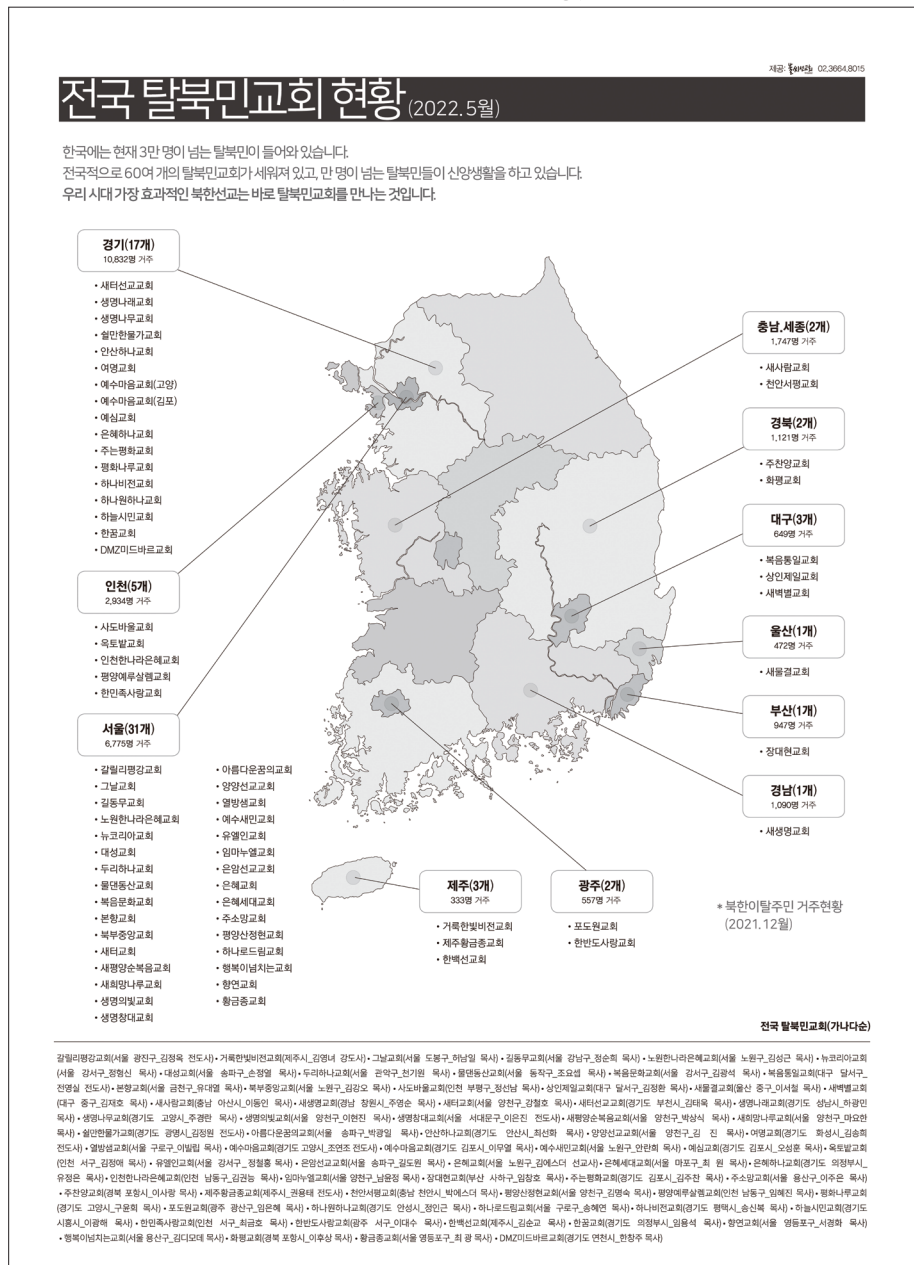
**2단계:** 탈북민교회와 결연을 맺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라. 단순한 후원교회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탈북민교회는 남한교회에 북한선교의 현장을 제공하고, 남한교회는 탈북민교회의 목회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서로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강단교류를 해나간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남한교회와 탈북민교회가 통일준비의 파트너가 되어 아름다운 동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3단계:** 열매를 기대하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 심는 북한선교의 씨앗이 아름다운 통일의 열매로 결실할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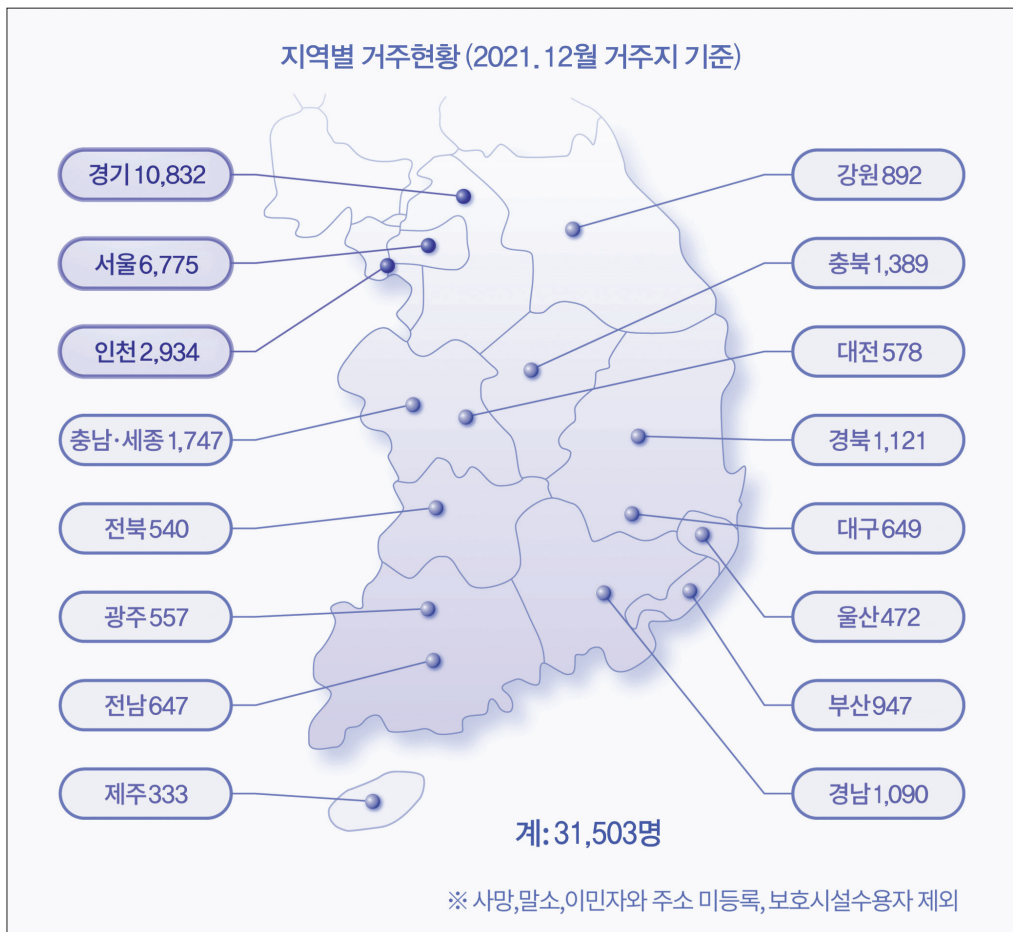
끝으로, **4) 탈북민교회는 한국교회와 동역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탈북민교회는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분명한 열매이다. 그리고 북한선교의 현장이고 실제이자 통일준비의 길잡이다. 이제는 저 멀리 있는 북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곁에 와있는 3만 여명

〈 그림1.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 그림2.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현황〉



출처: 불씨선교회/ 통일부

〈2021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총 33,815명이다. 이들 중에 사망, 말소,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주소지가 파악된 인원은 31,503명이다. 2020년 말 31,516명이었던 것이 되려 13명 감소했다. 그동안 통일부에서 탈북민 거주현황을 파악해온 이래로 전체 인원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각 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북한과 중국, 동남아 등의 국경이 막히면서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입국하던 인원이 2020년 229명, 2021년 63명으로 급감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수십만의 북한여성들과 러시아에 있는 수만의 북한노동자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이 사역의 가장 좋은 접촉점이 되는 탈북민교회와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다.〉



# 코로나19 이후 통일민 교회의 남북통합목회에 대한 고찰

김 광 석 목사 (복음문화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는 통일민<sup>1</sup>교회의 목회현장에서 중요하다. 물론 보편적인 교회의 목회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다. 목회자의 관점에서 교회는 말씀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목회는 사랑과 섬김, 교제의 중요성을 요청받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온라인에서 설교를 선택하여 각 사람이 가능한 시간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이로부터 설교 중심을 강조하던 교회에 설교를 듣기 위하여 나갈 필요가 약해졌다. 이제는 설교가 좋은 교회에 대한 선호도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

교회에서 설교와 섬김과 교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며 설교와 섬김과 교제가 분리되었다. 설교는 온라인에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거나 교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주일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던 지난 시기와 달리 이제는 섬김이나 교제를 위하여 필요한 날만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른 양상인데 주일 예배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던 보편적인 성도 중에서 발견된다. 교회에서 섬김과 교제를 필요로 했던 새신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출석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안에 형성된 사랑과 섬김, 교제의 자리가 약

화되면서 새신자는 본인이 원하는 섬김과 교제가 없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만 듣는 것이 의미 없다. 통일민 교회에서 식탁교제는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교회에 나온 통일민의 경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알고 성도의 식탁교제에서 친교를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 외로운 삶의 여정에서 식탁을 마주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된다.

코로나19 이후 섬김과 교제가 위축 되면서 통일민 교회가 약화되고 새신자들이 교회에서 멀어졌다. 통일민 교회는 말씀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섬김과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함께 했던 식탁교제가 회복되어야 한다. 가족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교회의 식탁교제를 통하여 외롭고 우울하고 힘든 영혼이 위로 받고 삶의 활력을 얻는다.

통일민 교회는 사랑과 섬김, 교제가 중요한 목회현장이다.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성도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혼을 올리는 설교가 있을 때 통일민 교회는 부흥한다. 통일민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지는 곳이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자리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통일민이 모인다.

교회에서 통일민 부서가 만들어지거나 통일민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관찰해 보면 우선 통일민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면서 시작된다. 보통 여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통일민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이기 시작하면 통일민 한 사람, 두 사람 모이

기 시작한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북한선교부나 통일민과 함께 하는 기도회나 소그룹 모임이 만들어진다.

통일민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려는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이므로 세워진다. 통일민 한 사람이 세례 받은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까지 사랑과 섬김을 통한 오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민 성도가 교회 일군으로 세워지면 남북한 성도의 구별이 없이 경계가 희미해진다. 이런 과정이 통일민 교회에서의 남북통합목회이다.

통일민 교회에서의 남북통합목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원하는 성도의 참여로 진행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통일민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범 사례로 보면 예능교회의 통일선교부와 충현교회의 교구활동이다. 예능교회 통일선교부는 월1회 통일민 교회에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통일민과 교제하였다.

충현교회는 16개의 통일민 교회를 교구별로 맡아



<sup>1</sup> 이 글에서 '통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호칭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새터민은 북한을 탈출한 동포의 정체성이 없고 이주민과 구별이 어려워 북한이탈주민으로 불렸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한 주민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하지만 과거의 정체성에 매여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일민'을 북한이탈주민의 새로운 호칭으로 제안한다. 통일민은 과거의 정체성에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소명의식을 담고 있으며 주님 안에서 예수의 몸에 연합된 성도로 통일을 위한 사명을 품고 헌신하게 된다. 통일민은 찾아온 통일이다. 통일민을 통하여 통일을 경험하고 통일을 논하게 되며 통일을 꿈꾸게 된다. 통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통일민'으로 부르며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탈북민은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으로 부르며, 난민의 지위를 얻은 탈북민은 '탈북난민'으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섬기는 활동을 했다. 남북통합목회는 예능교회와 충현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하여 남북한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적으로 가정구성원 전체가 통일민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찾아와 함께 예배하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통일민과 교제함으로 남북통합목회의 참여자가 된다. 남북통합목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통일민 교회와 함께함으로 가능하다.

통일민 목회자는 부교역자가 없이 심방과 교육과 상담, 사회정착 등에 필요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함께 감당하며 사랑의 집을 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기도와 후원 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통일민 교회는 세워진다. 통일민과 함께 통일된 미래를 살며 북한에 세워지게 될 교회의 샘플집단이 통일민 교회다.

코로나19 이후 통일민 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다. 외형적으로 통일민 교회의 수가 증가하고 100명 이상으로 부흥한 교회도 늘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의 통일민 교회가 있으며 만 명이 넘는 통일민 성도들이 통일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민 교회가 가장 많은 서울지역은 31개, 경기도는 17개로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에 있다.

통일민 목회에서 온라인 예배는 큰 의미가 없다. 온라인 예배는 말씀의 양식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이 스스로 참여할 때 의미가 있다. 비대면 예배는 설교를 듣기위한 방편일 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을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찾아야 하고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모여야 한다. 온라인 교회에서 설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과 교제가 분리되어 진행된다.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성장하는 통일민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는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영상을 통한 성경공부나 소그룹 모임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일 예배를 통한 만남과 친교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부족하다. 목회자의 심방도 좋지만 영상을 통하여 성도의 소그룹 모임과 성경공부를 함께 하는 것은 신앙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 이후에 회복해야 할 중요한 교회 사역은 자녀 양육이다. 주일학교가 어렵게 되면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쉽지 않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가정에 갇혀 있으면서 부모와 함께 예배하기 어려웠다. 부모의 입장에서 갑자기 아이들과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혼란스럽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부모는 설교를 듣지만 아이들의 세계는 다르다.

교회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의 성장의 단계별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민 교회 특성상 가족 단위로 모이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연령도 차이가 많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가진 성도가 부족하다. 통일민 교회사역에서 가장 큰 난관이 자녀교육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사의 부재와 장소의 협소함이 있고 중고등학생의 경



우 교회에 친구가 없다.

통일민 교회에는 통일민 중고등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서 부모들이 자녀의 친구가 있는 교회를 찾게 된다. 통일민 교회에서의 남북통합목회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참여도 필요로 한다. 교회가 자녀들을 위한 방과 후 지원이나 밴드 모임 같은 활동을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친교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통일민 교회는 통일을 위한 준비이면서 동시에 통일 이후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다. 때문에 자녀세대를 위한 남북통합목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섬기며 자녀의 친교가 활발한 교제의 장이 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민 교회에서 목회자는 자녀도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통일민 목회자의 가정생활이 어렵고 사모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자녀가 방치된다.

통일민 교회는 보편적인 개척교회와 다른 지역사회에 있는 북한선교의 현장이다. 통일민 교회를 통하여 통일민 복음전도와 함께 탈북민 구출 사역

과 북한내지 선교를 비롯한 북한선교가 진행된다. 통일민 교회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통일을 경험하는 샘플집단이며 통일 이후 북한에 세워지게 되는 교회의 모습이다. 때문에 통일민 교회는 통일과 북한선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통일민 교회를 통하여 남북통합목회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통일민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과 섬김의 수고와 교제가 코로나19 이후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교회 선호도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설교 중심의 목회자 입장이 선호되었다면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은 진정한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를 선호한다.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교제를 선호한다고 하여 말씀이 약화되거나 2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 받으며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다. 통일민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모아지면 통일민이 모이고 남북통합목회가 시작된다.

통일을 바라며 북한선교를 기도한다면 지역 사회에 있는 통일민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민 교회는 북한선교의 현장이며 다양한 분야의 일군을 필요로 한다. 통일민 교회에서 통일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것이 통일민 교회를 통하여 보는 남북통합목회이다. 🙏



# 주님의 은혜 (1)

김 모 란 (탈북청년 공동체 간사)

저는 현재 대학가에서 탈북민 대학생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공동체 사역을 하고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많은 탈북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중국에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왔으나 당시는 생계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했을 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이 저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마다 저는 멀리 세상 속으로 도망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잡아 세워주셨습니다. 제 스스로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요즘은 살아 숨 쉬는 매 순간마다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탈북민 공동체에 베풀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북한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 1.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1-2)*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북한 전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여기저기에서 친구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학업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했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상업부기를 전공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밥은 찹뿌리와 강냉이를 7:3으로 섞어 끓여주는 대체식품이었고 소금물에 절임 배추 세 조각을 동동 띄워 주는 것이 반찬의 전부였습니다. 전력공급이 되지 않아 겨울이면 수도물이

얼어 터지는 기숙사에서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긴 겨울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최우수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가 배정해 주는 곳에서 상업부기로 9년간 일했습니다.

저는 평양, 남포, 강계, 만포, 혜산, 사리원, 해주, 신의주 등 전국 각지를 출장 다니면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죽음을 눈앞에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오는 중에 압록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신이 계신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당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디엔가 계시신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생(生)과 사(死)를 오가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함께 오던 일행 중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강을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님과 현지 교인들의 도움으로 한국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습니다.

## 2.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3:5)*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성경속 진

리의 말씀을 통해, 또는 주변 환경과 상황을 통해, 꿈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2012년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6개월 동안 전산회계 1,2급 전산세무 1,2급, 컴퓨터 마스터 자격, 중국어 마스터 자격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어디서도 받아주는 곳은 없었고 탈북민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대학에 진학해서 새롭게 처음부터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대학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논술, 역사, 철학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습니다.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교회에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월 20만 원씩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가 솔깃해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적응하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항상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했고 교회의 시스템이 북한의 시스템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진행되는 큐티와 말씀 묵상은 북한에서 어려서부터 매일 매일 30분씩 진행하던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 공부를 연상케 했고, 주일에 모여서 셀 모임을 진행하는 것은 마치도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진행하던 생활총화를 방불케 했으며, 교회에서 회개를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늘 해왔던 자아비판과 오버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저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하시고 대한민국에 인도해 주신 귀한 사람이다.”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신과 원망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태어난 고향과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 탈북을 선택했을 때,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도망치며 불안과 공포에 떨며 지낼 때, 셀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었을 때, 그때는 왜 보고 침묵만 하셨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런 고난을 막아 주셔야 하는데 왜, 보고만 계셨는지. 저의 어리석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입시 준비를 열심히 하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강당에 학사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북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함께 다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꿈에서나마 너무도 반가워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출입문을 열고 물이 담긴 세숫대야를 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아 있는 우리의 발등에 물을 툭툭 뿌리며 하나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저는 꿈속이지만 너무도 부끄러워 발을 감추느라 땀을 흘리며 안간힘을 씁니다.

다음날,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너의 발을 씻겨 주신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함께 뒤엉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저는 꿈에도 그리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채플을 들으러 대강당에 갔는데 그곳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도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저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었

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년 전 꿈에서 봤던, 내가 북한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어떤 인자한 아저씨가 발을 씻겨 주었던 그곳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쿵~ 울려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와 북한의 친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강당은 제가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마다 저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만학의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지만, 조카뻘 되는 학생들과 경쟁하며 공부하는 것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공부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에 넘쳐있었던 저였지만 지금까지 북한에서 배웠

던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수업시간 교수님들이 하는 말은 분명 한국어를 구사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외계인이 말하는 외계어 같았습니다. 수강 신청부터 강의실 찾는 방법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고, 귀는 열려 있었으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힘들어 대강당에 찾아가 혼자 엎드려 기도하며 실컷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나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것 같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 3.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대로

“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24)

대학 1학년 1학기, 벚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수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양화진을 방문했습니다. 그 곳은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장소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곳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혈연도 지연도 하나 없는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왜 아직도 저 북녘의 내 형제자매들은 찬송가도 소리 내어 부르지 못하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인가. 그 가슴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땅에 부르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 1) 하나님은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 2) 하나님은 왜 두려움과 절망,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 3)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대학에 보내셨을까.
- 4) 하나님은 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죄가 많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 5)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일까.

어느 날, 대학 창립 130주년 기념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여선교사가 이 척박한 조선 땅에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떠돌던 여자아이, 병들어 죽어가던 여자아이를 데려다 공부시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130년 전에 꽃님이, 별단이를 찾아 이곳에서 공부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오늘은 저를 찾아 삼만리 저 북한 땅에서 꺼내오시어 공



부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을 수천, 수만의 꽃님이 별단이들을 위해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바라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저 북녘의 여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빚으신 가장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질그릇이어서 누구보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단단하게 포장해 주시면 그 어느 그릇보다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비록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철의 여인이 될 것입니다. 저 북한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면 저를 깨닫게 해주소서. 불쌍한 북한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로 키워주소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케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값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 4.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

*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마태복음7:7-8)*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으신다는 생각을 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매일 중앙도서관에서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 우수한 성적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쪽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나님의 중매로 결혼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잠시 학업을 내려놓고 남편의 근무지인 해외에서 신혼을 보내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전심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썼습니다.

한편으로는 신혼집 방 한 칸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며놓고 하나님의 종들을 초대하여 섬겼습니다. 먼저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아가는 후배 탈북청년들을 초대하여 해외에서 평안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었고, 중국에서 북한선교, 탈북민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들을 초대하여 성심성의껏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북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일 기도예 응답 주시는 하나님, 셀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강력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갓 태어난 첫째 아이를 품에 안고 한국

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시 복학하여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복학 후, 탈북민 대학생 30여 명이 모여 있는 공동체의 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마치도 그곳은 북한 사회를 축약해 놓은 축소판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배급 체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자그마한 이해관계를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으로 난무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거울처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에 물을 담으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그냥 그릇에 물을 담으면 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일념으로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생겨나면 자금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 어디서도 지원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선뜻 3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씨앗 헌금으로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차고 넘치게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며칠 후, 고향 후배가 후원자 한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만약 내가 자매님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면 어떻게 사용하겠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며 준비했던 대답을 드렸습니다. “우선 150만 원은 생활이 어

려운 학생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식비로 지급하고, 200만 원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주거비를 매월 10만 원씩 제공 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교재비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라고. 후원자분은 저의 대답에 만족해하면서 흔쾌히 1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작은 숨결에도 귀 기울이시고, 기도예 응답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눈물 흘렸습니다. (계속) 

#### 아가페통일리더 공동체는...



#### 아가페통일리더

AGAPE UNIFICATION LEADER  
<아가페 통일리더 공동체 로고>

이화의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 후, 북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일리더로 준비하기 위해 이화에서 공부하는 북한 출신 크리스천 학생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북한을 사랑하시고 탈북민들을 통일 후 복음의 전달자로 사

용하시려는 하나님의 크나큰 뜻과 계획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마을입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일 후,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성경공부 모임, 독서 세미나, 봉사 활동, 의료선교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지향하며 주변에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글로벌 크리스천 통일리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북한 김정은, 코로나 방역전 승리 선언



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이 공식 석상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대남 경고 수위를 높이려는 속내로 관측된다. 그는 당 부부장 신분이지만 국무위원으로 대남 대외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했다. 또한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기로 하였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며 최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 이후 91일 만에 정상방역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와 원숭이두창 등이 확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어진 토론 연설을 통해 남측에 의해 코로나19가 북에 유입됐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보

특히 이 연설에서 김 부부장은 "이 방역 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 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고 언급했다. 오빠인 김 위원장이 이른바 '유열자'(발열자)였다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 사태 속에 기밀 중의 최고 기밀인 최고지도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1일) 🐼

## 북한, 외화벌이 빠듯해졌나… 금지된 '인력송출' 버젓이 홍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금지된 노동 및 기술 인력 송출을 버젓이 홍보하고 나섰다.

8월 14일 외국문출판사가 운영하는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는 '향서경제연합회'를 화첩 형태로 소개하면서 ▲ 지하자원 개발 및 부동산 ▲ 수산자원 개발 및 양식 ▲ 상업봉사 ▲ 정보기술 개발 ▲ 은행 업무에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화첩은 외국인 바이어를 겨냥해 영어와 중국어로 병기돼 있었는데, 자신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해외기술 및 로력(인력) 협조사업과 무역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 왔다"고 홍보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식당 봉사, 식료 및 피복 임가공,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의 기술 및 로력협조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공들을 선발 육성하는 사업도 전망성 있게 내밀고 있다"고 밝혔다.

'로력 협조'란 다른 나라와 인력을 교류하고 나아가 북한 노동자 및 기술자를 파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국외 인력 송출은 안보리가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측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한 제재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화첩은 수산물과 광물 무역도 상세히 광고했다.

2011년 설립된 이 회사는 평안북도 신도군 앞바다

에 수만 정보(1정보=3천평)의 양식장을 보유하고 해파리, 바스레기(바지락), 개량조개 등을 양식 중이며, 소라와 꽃게, 성게, 왕새우, 삼치, 광어 등 고급어족 서식에 유리한 깨끗한 환경을 갖췄다고 자랑했다.

이 밖에도 고품위의 금, 은, 동과 자철정광, 연정광, 회중석 등 무진장한 광물자원을 이용해 무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수산물과 광물 역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안보리는 2017년 8월 북한의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제재결의 2371호를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이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대중·대러 무역과 노동자 수출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외화벌이가 절박해졌음을 시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만 해도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업이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창구였으나, 2년 넘게 코로나로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외화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온라인으로 '2022년 조중(북중)국제상품전람회'를 열어 수출이 금지된 수산물과 인삼 등을 홍보하며 기존 외화벌이 창구 복원에 집중한 바 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4일) 🐼



## 북한 선박 압록강서 운항 재개



〈압록강서 모래 채취하는 북한 선박 (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북한 신의주에서 압록강에 있는 북한의 섬들을 오가는 화물선 운항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 5월 1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공표하면서 전면 봉쇄 조치를 내린 이후 북한 선박들은 압록강에서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8월 10일 오후 단동의 압록강 하류에서 선미에 북한 인공기를 단 화물선 한 척이 신의주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선박의 1층에는 포대 자루가 가득 실려 있고, 인부로 추정되는 10여 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선박은 단동 시내에서 약 5km 떨어진 황금평 등 북한에 속하는 압록강의 섬들을 오가며 물자를 수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간 인근 중국의 섬인 웨량다오 부근에서는 북한의 모래 채취선이 작업하고 있었다. 이 배에는 반바지 차림의 3~4명이 타고 있었으며 빨래를 널거

나 장비를 점검했으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았다.

단동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 선박들이 이달 초부터 압록강에서 운항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중국과의 해상교역 확대를 위해 선박들의 방역 통제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중 해상교역은 남포항과 중국 산둥성 룡커우항이 주로 이용된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최근 북중 해상교역 선박들에 대한 방역 통제를 완화했다"며 "중국에서 남포항에 들어온 선박은 외항에서 3개월가량 대기해야 했는데 내항 정박을 허용했고, 대기 기간도 보름으로 단축됐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 기간 배에서만 머무르도록 했던 선원들도 육지에 내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도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부족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해상교역"이라며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 선박 방역 통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선박들은 룡커우항이 물류 정체를 빚자 룡커우항 인근 항구들과 라오닝성 다렌 베이량항도 이용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1일) 

## CIA “북한 주민 19%가 휴대전화 사용”



〈수해 복구에 투입된 북한 조선인민군들이 휴대전화로 위문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노동신문)〉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인원이 전체 인구의 19% 정도이며 주로 고위 간부와 외교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8월 1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한 ‘CIA 월드 팩트북’ 내용에 따르면 북한 내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 수는 작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19%가량으로 집계됐다. CIA가 올해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95만5000여명 수준으로 추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490만 명에 달한다.


CIA는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보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당국의 검열이 엄격해 고위 관리들과 외교관이 휴대전화 사용을 독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

립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통신 부문에 더 강력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 휴대전화와 유심(USIM)칩을 구해 불법적으로 중국 기지국에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서비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상당한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CIA는 북한의 고립주의와 저조한 경제 실적이 몇 년간 이어지면서 북한의 ‘세계 통신 서비스 지수’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함께 전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CIA는 북한의 유선 통신망에 대해선 “제대로 작동하는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제약이 많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90년대 전국에 광섬유망을 깔았지만, 이 망은 개별 가정엔 거의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김여정,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어리석음 극치…절대 상대 없을것”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

부 의사를 밝혔다. 특히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라고 언급하며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8월 19일) ☎

## 북한의 대북방송 전파방해 올해 더 심해

북한의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방해가 올해 더 심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미국의 라디오 전파 분석팀 텍 퍼블리싱(Teak Publishing)은 한국의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 신호 녹화 영상을 트위터에 공개했다.

동북아방송연구회의 박세경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북한 당국의 전파방해가 더욱 강력해진 것으로 관찰된다”며 북한이 미국 정부의 대북방

송인 미국의 소리(VOA), 일본 정부의 ‘고향의 바람’과 ‘일본의 바람’, 그리고 다수의 민간 대북방송과 기독교 대북방송에 방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종교 대북방송은 방해 전파가 포착되면 수시로 주파수를 변경하는데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변경된 주파수에 방해 전파를 발사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 8월 15일) ☎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서해 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저자: 강동완

출판사: 도서출판 너나드리

발행일: 2021년 12월 3일

가격: 35,000원

한으로부터 4~5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과자봉지나 페트병과 같은 쓰레기에서부터 각종 잡화들까지 잡다한 북한산 물건들이 해안가로 떠내려 온다. 쓰레기라고 하니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쓰레기들은 지금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흔적이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과 경제 수준은 물론이고 이러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꼽힌다.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 이외의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 출신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안의 사정이나 생활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귀로 듣는 소식을 넘어 북한의 사회상이나 생활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에 갈급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북한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북한 사회를 보여주는 시청각적인 자료는 작은 것이라도 의미있게 다가온다. 국경에서 어렵게 찍은 북한의 풍경이나 사진, 또는 북한에서 사용한다는 물건들은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의외의 형태로 바닷가에 쌓여있었다. 바로 조류를 타고 북한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북한산 쓰레기들이다. 특히 서해 5도는 북

업 환경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사실 그 동안 북한의 쓰레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이 쓰레기를 직접 수집하고 정리하여 사진 자료와 함께 책으로 정리하였다. 바로 오늘 소개할 책 “서해 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북한쓰레기들을 살펴보면 먼저 품목과 브랜드의 다양성에 놀라게 된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고 열악하다고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 경제가 과거 배급제의 그것이 아닌 장마당을 통한 생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제품의 포장지 상태를 보면 그 문구나 로고, 삽화들이 우리가 보기에 촌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물건의 종류도 다양



하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얻고자 애쓴 흔적들도 보인다. 몸에 좋은 성분들을 선전하는 모습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건 선택의 기준은 비슷하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제품의 가짓수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히 상업 활동의 활성화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는 대형 기업들이 여러 공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지만 북한에서는 여러 기관과 기업소가 제품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와는 산업 구조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산단물(우리의 탄산음료)의 경우 그 브랜드만 40여개나 되었다. ‘랭천’, ‘대성천’, ‘슬기’, ‘꽃이슬’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신선하고 특색 있다.

최근 쓰레기들에서는 북한의 최근 경제 경향도 일부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탄산단물의 경우 기재된 성분을 보면 설탕 대신 ‘8월 풀당’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꽃을 검색해보니 스테비아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 꽃은 잎에서 단맛이 나는데 같은 양의 설탕보다 훨씬 달고 칼로리도 적어 해외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개발되는 모양인데 북한에서는 주요 수입품인 설탕의 대용으로



〈한국으로 떠내려온 북한 제품의 포장지를 수거하고 있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

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외부로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북한 안에서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 북한 내에도 스마트 기기나 IT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듯이 최근 생산된 제품의 포장지에는 QR코드가 삽입된 것들이 많았는데, 그 링크를 따라가면 제품 보관 기일을 표시해주기도 했다.

이 책은 단순히 북한쓰레기 사진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각 쓰레기들을 제품별로 분류하고, 또 제품에 표기된 생산 공장들도 정리했다. 북한에서 생산된 포장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산업 미술, 생산 시기별로 개선되어 온 제품 포장지의 질 등 쓰레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사진과 사진 사이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 책의 저자인 강동완 교수는 서해 5도의 북한쓰레기에 이어 동해안에서 같은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북한은 평양, 남포 같은 대도시와 주요 식량생산기지인 황해도 등이 위치해있는 서쪽과 강원도 및 함경도의 산악지대가 밀집한 가운데 해안을 따라 원산 등 주요 도시들이 위치한 동쪽과는 생산 공장 및 물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른 사용 물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궁금하다.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도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이러한 시도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더욱 넓혀주실 기대하며 재미있게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북한의 속살을 들춰보는 느낌의 책, “서해 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를 소개해본다. 🐼

**1** 탈북민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봉쇄와 격리의 연속 속에서 외로움과 압박감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가 탈북민들의 고독사 급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팬데믹 완화에 발맞춰 탈북민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수고하는 일선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사역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탈북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탈북민 교회들은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 수준의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관심과 지원도 감소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과 통일을 외치면서 정작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는 몇몇 개인의 희생에 의존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탈북민들을 섬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에 따른 각종 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자신들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큰 난항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 주민들의 수해와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북한 당국이 8월 10일 코로나 완전 종식을 선언한 만큼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경제난이나 식량난은 여전하며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7월 25일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에 추가적 압박과 고통이 가해졌다”며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많은 비로 인해 수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고 평안북도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과 수해 등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러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

##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레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

**5** 중국의 코로나 사태 해결과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을 0%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 완화는 북한선교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북한은 국경개방을 원하지만 중국 측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를 막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되고 북한과의 국경이 개방되어 교류가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및 강화된 단속 활동 속에서 적발된 지하교회와 성도들의 안타까운 박해와 순교의 소식이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방해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8월 31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파송선교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 모집인원

해외 파송 선교사 (여성 사역 부분: ○명 / 일반 사역부분: ○명)

## > 주요업무

-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현장사역 참여  
(제자훈련, 지도자 훈련, 구제·구호 사역 등)
- 여성 사역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 지원자격

- 교회의 인정을 받는 선교사로서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정통 교단 소속 교육부 인가 신학교 졸업 예정이거나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는 분
- 여성사역의 경우 여성만 지원 가능 (독신자 우대)
- 연령제한은 45세이나 예외 가능, 중국어 가능자 우대

##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 (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담당 교역자 1부, 담당 교수 또는 소속 단체장 1부)
-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일반 건강검진 결과 (최근 2년, 면접 이후 제출)

## > 기관 소개: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참조

## > 사역 조건

선정된 선교사 후보생은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파송선교사 자격이 주어지며,  
파송선교사에게는 선교회의 기준에 따라 사역 비용 및 현지 체류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 모집 기한

사역자 모집완료까지

##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 문 의

다니엘 간사 (010-5107-8448),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